

삼과 신앙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질문: 목사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성장을 위한 기도인데도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완벽히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즉시 응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더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게 벌써부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질벼의 치유 같은 경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회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도 요구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싫다고 자꾸 거역할 수록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강한 욕구와 정욕, 어둠의 세력에 속박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기 위해 이런 속박이 하나 하나 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감이 사라지고 불신앙과 불경스러운 모든 것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열매를 인간이 알아챌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기도를 올바르게만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에게 닥치는 고난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한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로 여겨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너무 없는 경우 기도하는 사람 편에 울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겉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결핍되어있고 하나님과 참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기도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매일 많은 말로 반복하는 것보다 잠잠히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살피고 늘 주님과 동행 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에게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경솔하지 말고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고, 오해하거나 엄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함과 관용 없이 가르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보다 더 빨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직접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때문에 상심하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인내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심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사,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히, 남은 한 해가 동안 새벽집회와 기도운동에 참여합니다!
3. 금주는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주일성경공부 여름학기**가 7월 첫 주일(7/7)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7 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그림으로 표현하는 성경묵상: 정홍렬 목사
5.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동정 : 최선운/윤정 (한국 방문 중)

♥생일 축하♥ 김영은(6/8) 오승국(6/15) 이정연 (6/24) 홍은솔(6/7)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6/23	6/30	7/7	7/14
	박진성집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정홍렬목사
금요일예배기도	6/28	7/5	7/12	7/19
	구은강집사	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6/23	6/30	7/7	7/14
	구 민집사/홍정임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7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 마태복음 6:25-34**

현장 학습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이를 위해 첫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믿음의 눈, 둘째,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는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속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며, 주권과 통치를 깨달으며,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 천국의 풍요를 더 풍족히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해야겠다.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헌신과 수고 / 여호수아 1:10-18

자신의 필요를 우선하는 개인주의보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연대의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며,

40년간 광야에서 공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함께 체험하며,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가 되고, 지체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고, 참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세워주며, 위로하며,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공동체를 세웁시다.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헌신과 수고 / 여호수아 1:10-18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도 자신들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 지파는 모세의 생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굳이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지파처럼 기나긴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는 군사력에 있어서나 사기에 있어서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며, 이 문제를 단호히 분형하게 처리합니다. 이들이 해야 할 바를 분명히 말합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무장을 하고 함께 요단을 건너가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단지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들 지파에 속한 사람은 모두 순종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 전쟁에 앞장 서 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히 공동체 생활을 했고 연대책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며 차츰차츰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 때, 이들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은 이미 땅을 받았지만, 땅을 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건강한 공동체 의식은 40년 동안 동고동락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일은 곧 자신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나섰던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 앞장 서서 요단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형제들을 위해 앞서 서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체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한 모든 실질적인 도움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주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 되 될 것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June 30,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재점검의 달
선교 주일
상반기 결산 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